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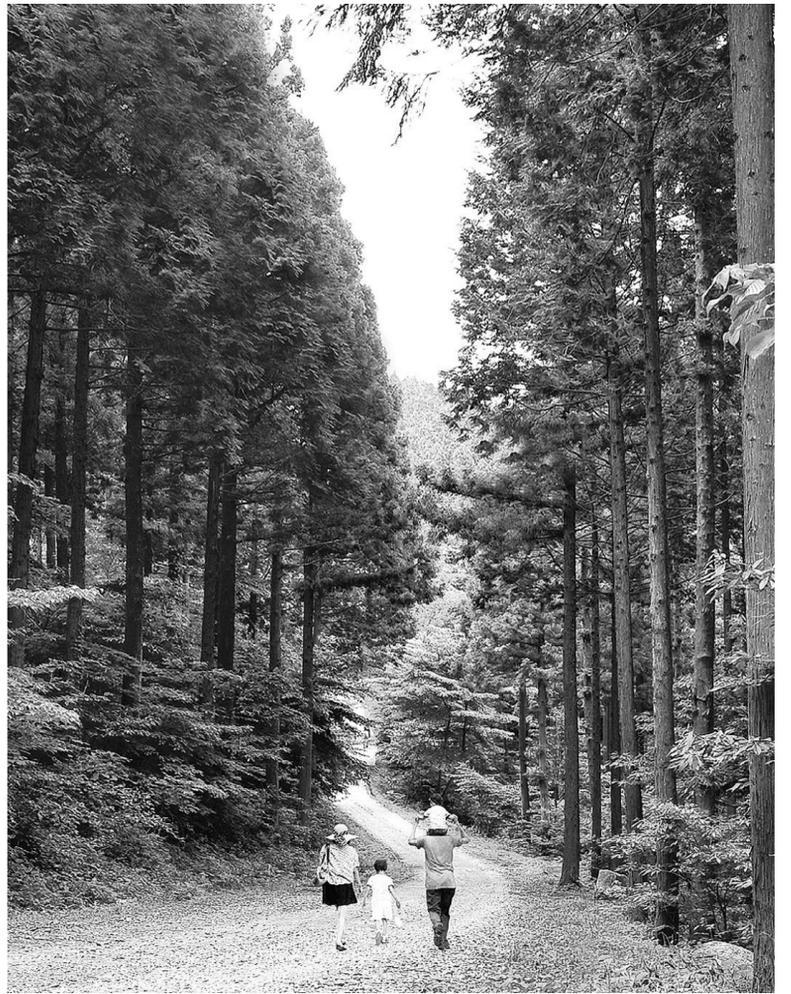
새해는 '장성 방문의 해'... 1000만 관광시대 연다

편백림 품은 축령산 '명품숲 투어 어게인' 관광객 이용료·택시비 지원 2인 1팀 최대 6박7일간 여행하면 숙박비·식비 등 최대 150만원 지원

장성군이 새해 1000만 관광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 다양한 관광 활성화 정책을 펼친다. 장성군은 체험형 관광콘텐츠와 개정 이래 처음 유치한 '2025 전남체전-전남장애인체전'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내년 초부터 '장성 방문의 해'를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 구축'으로 전국 최대의 편백림을 품은 축령산 '명품숲 투어 어게인'이 주목된다. 이 프로그램은 장성 방문의 해 누리집에 접속해 사전에 신청하면 택시가 산행 종착지에서 기다리

고 있다가 관광객을 태우고 주차 지점까지 데려다 준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관광객은 등산코스 도착, 읍 시가지 복귀 시 모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택시 요금은 무료로 장성군이 전액 지원한다. 택시를 타고 장성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관광택시' 프로그램도 관심을 끈다. 관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3시간·5시간·8시간 코스를 운영하며 이용료의 50%를 군이 지원한다. 전남도와 연계한 여행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2인 1팀이 장성에서 최대 6박7일간 여행할 경

우 숙박비, 교통비, 식비, 체험비, 보험비 등을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줄길거리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장성호 수변길, 홍길동 테마파크, 백양사, 필암서원 등 '장성 핫플레이스'를 직접 걸으며 스탬프를 모으는 '스탬프 투어', '구석구석 라이브 버스킹', 황룡강 정원 '불꽃놀이 라이브쇼' 등이 3월부터 10월까지 연중 펼쳐진다. '장성 방문의 해' 관련 자세한 정보는 내년 2-3월께 구축 완료되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군 최초로 양대 체전이 열리는 2025년은 '1000만 관광 시대'를 여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장성 축령산 편백숲. (장성군 제공)

강진쌀 해외 시장 도약...몽골에 20t 첫 수출길

509t 계약...다음달부터 중국 헨진·필리핀 등 판로 확대

강진군은 최근 강진쌀을 몽골과 509t 규모의 쌀 수출 계약을 체결해 수출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6일 강진쌀 20t을 첫 선적을 시작으로 몽골 시장에 본격적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이번 몽골 수출로 강진쌀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첫 시작이 될 전망이다. 2025년 1월부터는 중국 헨진 시장에 3,000톤 이상의 물량을 수출할 예정이며, 이후 필리핀에도 강진쌀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진군농협통합RPC 김달욱 대표는 "몽골 수출은 새로운 시장 개척의 시발점이자, 강진쌀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기회"라며 "수출 선적을 시작으로 향후 더욱 많은 물량이 몽골로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강진쌀이 중국으로 원활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각종 등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현재 중국에서의 가공공장 등록 승인이 남아 있다. 가공공장 등록은 중국 수출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데 중요한 과정으로, 강진쌀의 품질과 신

뢰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반이 된다. 강진군은 이번 몽골, 중국 및 필리핀 등 수출 성과를 통해 지역 농업의 제도약을 꾀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국내 쌀 산업이 직면한 재고 문제와 소비 부진을 해소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몽골과 중국 수출은 강진쌀이 글로벌 농식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강진쌀의 우수성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에 알려 해외 시장을 지속해서 개척해 강진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

장흥평화역 4차선·국도 2호선 평화IC 램프도로 개통



장흥평화역, 장흥(평화) IC, 국도2호선

장흥군은 장흥평화역 4차선 진입도로와 국도 2호선 장흥(평화)IC 램프도로를 개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민회관 앞 회전교차로에서 장흥평화역 구간 약 650m 노선을 기존 1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66억원을 투입해 올해 12월 사업을 완료했다. 국도2호선 장흥(평화)IC 램프도로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해 당초 철도개통시기인 2025년 8월에 개통예정이었다. 장흥군은 계획보다 4차선 진입도로가 조기에 완료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우선 개통하기로 결정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4차선 확장 및 국도2호선 램프도로가 완료되어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군, 국내외 '잔류농약 분석' 능력 입증

농진청·전 세계 식품·농업관련 분석기관 평가 '만족' 획득

화순군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잔류농약분석 숙련도 시험과 영국식품환경연구회(FERA)에서 주관한 국제비교숙련도평가(FAPAS)에서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의 잔류농약 분석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험은 합평전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위탁 관리하며, 지역 사회 환원사업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군은 면 단위 지역에도 도시재생 주민거점시설

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 '나산할머니다방'은 나산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며, 지역 로컬 양계농장에서 생산된 신선한 달걀로 만든 토스트와 커피세트가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해보면 전통시장 내에 있는 '꽃무릇카페'는 해보면 꽃무릇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며, 지역 특산물인 사인머스켓을 활용한 음료를 시그니처 메뉴로 제공한다. 학교면 농협하나로마트 건물을 리모델링한 '건

고 있다. 잔류농약 분석은 화순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관내 농업인이 생산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분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방문해 농산물 시료(0.5-1kg)와 분석의뢰서를 제출하면 된다. 류장수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숙련도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으며 화순군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의 분석 능력이 국내외에서 입증되고 있다"면서 "이는 화순군의 먹거리 안전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함평군, 도시재생 주민거점시설 운영

나비스 카페·스토어 등 개소...지역 경제·공동체 선순환

함평군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한 주민거점시설을 완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함평읍 중앙길 가변상가에는 ▲나비스 카페 ▲나비스 스토어 ▲나비잡자리 ▲마을공작소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들 시설은 함평전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위탁 관리하며, 지역 사회 환원사업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군은 면 단위 지역에도 도시재생 주민거점시설

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 '나산할머니다방'은 나산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며, 지역 로컬 양계농장에서 생산된 신선한 달걀로 만든 토스트와 커피세트가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해보면 전통시장 내에 있는 '꽃무릇카페'는 해보면 꽃무릇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며, 지역 특산물인 사인머스켓을 활용한 음료를 시그니처 메뉴로 제공한다. 학교면 농협하나로마트 건물을 리모델링한 '건

강드림카페'는 학교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며, 지역 특산물인 무화과를 활용한 스낵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함평군의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자조모임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민관 협치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하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공동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정책사업을 유지하고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담양군,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1000명당 13.6명 의심 증상... "백신 접종 해달라"

담양군은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로 질병관리청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0주 차 표본감시기관의 의원급 외래환자 1000명당 13.6명이 독감 의심 증상을 보여 유행 기준인 8.6명을 넘겼다. 모든 연령대에서 환자 수가 증가했다. 특히 단체 생활을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과 19-49세 사이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올해 유행 중인 A형 독감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높고 주요 증상은 38도 이상의 고열, 기침, 인후통 등이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고위험군은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기침 예절, 올바른 손 씻기, 실내 환기,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등이 필요하다. 담양군 관계자는 "백신 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아직 접종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담양군, 전남도 농정 평가 4관왕



담양군이 올해 전라남도가 주관한 각종 농정 평가에서 4건을 수상하며 농업 분야에서 역량을 입증했다. 담양군은 올해 전라남도 주관 각종 농업분야 평가에서 ▲농정업무 종합평가 우수상 ▲축산정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친환경농업대상 우수상 ▲농식품유통평가 우수상 등 다방면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농업농촌 활성화와 친환경 농업 육성, 식량-원예작물 생산 추진 등 6개 분야 33개 항목에 걸쳐 진행되는 농정업무 평가에서 담양군은 전반적인 농업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으며 우수상을 받게 됐다. 친환경농업대상 수상은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로, 담양군의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와 품목 다각화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나주시·동신대 '치매 친화' 사회 조성 협력

동신대, 치매 극복 선도대학 지정 나주시가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동신대학교를 '치매 극복 선도대학'으로 지정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치매 극복 선도대학'은 2개 이상의 학과에 최소 2시간 이상의 치매 관련 정규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모든 재학생이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해야 지정된다. 동신대는 현재 작업치료학과와 산림조경학과에

치매 관련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 바로 알기', '치매 파트너의 역할과 활동', '산림 서비스 치매 수요' 등을 주제로 매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기적인 치매 파트너 교육은 가정과 사회에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이해하며 지지하는 동반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문은 나주시치매안심센터 (061-339-4773-4780)로 하면 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